

웰빙 시대를 사는 우리의 자세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장 박갑록
pkri@kemti.org 02)2102-2600

요즘 우리 사회는 지칠 줄 모르는 '웰빙(well-being)'의 열풍이 불고 있다. 웰빙은 안녕, 행복, 복리를 뜻하는 달로, 1948년 세계보건기구인 WHO가 개최한 건강관련 국제회의에서 '건강은 질병이 없기만 한 것이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양호한(well-being) 상태'라는 정의에서 유래되었다. 웰빙은 말그대로 건강한(well : 안락한&만족한) 인생(being)을 살자는 의미이며, 삶의 질을 강조한 용어이다.

우리나라의 웰빙은 2003년 하반기에 대중적으로 확산되어 새로운 사회적 트렌드를 형성하여 이제는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로 자리 잡아 가고 있으며, 웰빙에 관한 다양한 의견들이 지속적으로 개진되고 식품, 생활용품, 주거용품에 이르기까지 많은 웰빙 상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 웰빙이 상업화되면서 정신적인 것보다는 요가나 스파, 휘트니스 클럽을 즐기며 비싼 유기농 재료를 사용한 음식단을 선호

하는 등 물질적인 측면만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진정한 웰빙이란 비싸고 고급스러운 문화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 풍요로운 정신과 건강한 육체를 유지해가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실생활 속에서 밀접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들 중에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는 없는지에 대한 감시와 확인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중국산 수입식품

지난해 중국산 식품 수입은 전체 수입 농산물의 15.7%, 수산물의 38.3%를 차지할 정도로 중국산 식품에 대한 우리의 의존도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올 들어 7월말까지 수입된 중국산 식품은 170만6천t으로 작년 전체 수입량인 170만t을 이미 넘어섰으며, 이같은 추세로 볼 때 올해는 350만t으로 예상되어 작년의 2배를 훨씬 웃돌 전망이다.



유/관/기/관/칼/럼

그러나 중국산 식품에 대한 안전성 여부가 끊임 없이 논란이 되고 있다. 맹독성 농약이 다량 검출된 홍삼이 수입되어 유통되는가 하면 중국산 전황에서는 이산화황이 기준치의 최고 7배나 검출되기도 했다. 지난 달에는 중국산 장어와 장어 가공식품에서 말라카이트 그린이라는 발암물질이 검출되었으며 콩이, 잉어 등 민물고기에서도 오염사실이 적발되면서 중국산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중국산 장어 제품에서 검출된 말라카이트 그린은 유해 곰팡이와 세균, 기생충 감염 방지제로 쓰이는 화학물질로 1990년대 초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어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용이 금지된 물질이다. 또한 이산화황의 경우는 표백제로 사용되는 물질로 다량 복용할 경우 위장 장애를 유발할 수 있으며 전식환자 등 일부 민감한 사람들에게는 홍조, 발작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독성물질이다.

중국산 식품이 매년 빠르게 우리 식탁을 점령해 가는 상황 속에서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입단계에서의 철저한 안전점검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소비자들은 중국산 제품 선별방법 및 유해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 습득을 통해 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사은품 화장지

자동차 기름 주유 시 사은품으로 가장 많이 받게 되는 것이 화장지이다. 그런데 일부 값싼 사은품 화장지에는 형광증백제와 포름알데히드는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이 함유되어 있다. 제조 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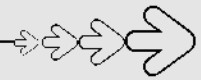
인 천연펄프 외에도 백상지, 종질지, 복사용지 등을 제단할때 배출되는 자무리 종이나 시적 등의 고지를 섞어 펄프화한 후 제조하는 과정에서 형광증백제가 혼입하게 된다. 또한 재생용지의 잉크 등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는 세척용제에는 포름알데히드가 함유되어 있을 개연성이 높다.

이중 형광증백제는 제품을 표백하기 위해 처리하는 약품으로, 피부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며 발암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물질이다. 현재 산업표준화법과 식품위생법에서는 비용 화장지와 종이컵 등에서 형광증백제가 검출되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포름알데히드는 자극성이 강한 물질로 농도가 높으면 알레르기성 피부염을 유발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현재 화장지의 경우 화학제품분야 품질표시기준 및 방법'에 따라 화장실용, 일반용, 비용용으로 구분되어 표시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사은품 화장지의 경우 품질 표시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제조업체는 화장지 생산 시 유해물질이 잔류되지 않는 범위의 고지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소비자는 주유소 사은품으로 받은 질 낮은 화장지를 종이컵이나 키친타올의 대용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화장실용, 일반용, 비용용으로 구분된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생활의 시혜가 필요하다.

웰빙을 위협하는 웰빙 제품

웰빙 열풍은 상업적인 부문에도 크게 영향을 미쳐 식품, 가전제품, 의류, 주택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분야에서 관련 제품이 양산되고 있다. 심지어 웰빙 햄버거, 웰빙 마우스와 같이 이전까지는 전



혀 웰빙과는 관계없던 제품들도 건강적인 요소가 첨가되어 출시되고 있는 현실이다. 어떤 종류의 제품이건 간에 신제품에는 무조건 웰빙 제품이라는 점이 강조되어야만 소비자의 관심을 끌 수 있을 정도로 건강과 환경을 고려한 새로운 기능성 제품들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다. 그러나 이런 웰빙 제품들은 건강과 환경 개선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아직 그 효능이 과학적으로 증명 되지 않은 경우가 허다한 실정이다.

대표적인 웰빙 가전제품인 공기청정기의 경우, 지난 해 7월 소비자보호원에서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공기청정기 중 6개 업체 제품을 구입하여 비교시험을 실시한 결과, 청정능력 등 전반적인 성능이 제품의 표시와는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공기청정기의 주 기능인 실내 공기 중의 부유먼지 제거능력(청정능력)을 시험한 결과, 전 제품이 표시치에 비해 11~60%까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기청정기의 유해물질 제거능력을 시험한 결과, 가스렌지나 히터 등 연소기기를 사용하거나 담배를 피우는 경우 발생하는 일산화탄소는 전 제품이 제거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 경우에도 다양한 웰빙 상품이 출시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유제품으로 곡물, 천연과즙 등 몸에 좋은 성분을 첨가하여 건강에 좋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소비자들에게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금년 6월 소비자보호원에서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유제품을 조사한 결과, 곡물 및 천연과즙 우유의 경우 실제로는 곡물 및 천연과즙 성분 함량은 1%도 안 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색소와 착향료의 다량 함유 및 당분 함유량이 높은 것으

로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웰빙 열풍은 우리의 주거환경에도 확산되고 친환경·친건강 주거용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관련 업계에서는 건축자재나 페인트에서 방출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이나 폼알데히드 때문에 두통, 알레르기, 피로, 천식 등을 일으키는 새집 증후군(Sick House Syndrome)을 막을 수 있는 친환경적인 건축자재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품들은 아직 과학적으로 안전성이나 성능이 증명되지 않은 것들이 많아 소비자들의 꼼꼼한 확인을 필요로 한다.

진정한 웰빙으로 가는 길

유기농 식품을 먹고 아로마테라피를 받고 요가와 스파를 한다고 해서 진정한 웰빙의 삶을 사는 것일까?

진정한 웰빙이란 유행을 따라 고비용의 웰빙 문화를 맹목적으로 추구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통하여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여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간에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지도 모르는 위험요소(식품, 생활용품으로부터 주거 환경에 이르기까지)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인식하고 제거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한다면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건강과 생활환경은 위험에 계속적으로 노출될 것이며 이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하는 **“행복한 삶”**, 즉 웰빙에 반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웰빙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유/관/기/관/칼/럼

이 사회를 구성하는 각 주체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맡은 바 책임과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제조업자는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환경친화적 안전제품의 생산에 매진하여야 할 것이며, 둘째, 제품의 품질과 성능을 평가하는 시험 연구원들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시장피수꾼의 역할수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소비자는 스스로 웰빙 문화를 선

도해 나간다는 책임감을 갖고 웰빙 제품에 대한 합리적이고 현명한 소비 생활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웰빙 산업의 성장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기업, 시험기관, 소비자 모두가 웰빙 시대에 걸맞는 본연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고 고대하는 웰빙 사회가 우리에게 한 걸음 더 다가오리라고 믿는다. **표준**

